

도쿄 식품박람회, 전북 농수산물식품 경쟁력 입증

바이오진흥원, 현장 100만불 수출 상담 성과 거둬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 식품기업들의 일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14일 일본 도쿄 Big Sight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 'FOODEX JAPAN 2025'에 참가했다.

FOODEX JAPAN은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2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약 8만 명 이상의 바이어 및 업계 관계자가 방문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이번 행사에서 전북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은 지역 식품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일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데 주력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박람회 참가에 앞서 일본 소비 트렌드와 유통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요건을 안내하는 사전설명

회를 개최했다. 또한 참가기업들이 일본 시장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 수출 경험 공유를 위한 간담회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

한편, 박람회 현장에서는 최근 일본 내 엔화 가치 변동과 소비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한류 열풍에 힘입어 K-Food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외식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가정 내 식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HMR(가정간편식) 제품과 수산물식품이 큰 주목을 받았다.

박람회 참가기업들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으며, HMR 부문에서 한국식 레디미일 제품에 대한 일본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아 다수의 상담이 성사되었다. 특히 군산의



수산물식품 및 절임식품 제조업체 Y기업은 일본 바이어 K사와 순살간장 계장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김치와 간편식을 생산하는 N기업은 말레이시아 바이어 A사와 김치 및 콤포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확보한 수출 상담 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바이어 초청 지원 및 사후 관리를 강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이번 박람회 참가기업

의 제품을 포함한 전북자치도 식품을 일본 현지에서 선보이는 관측행사를 개최 일본 시장 내 신규 진입 확대 및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북 식품기업들이 일본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전북 식품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과 남원농협은 지난 13일과 14일 남원농협 고축 종합시설에서 지역 내 농업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농촌 지역 주민 건강 증진 앞장’

전북농협, 남원시 올해 첫 농촌 왕진버스 함차게 출발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과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13일과 14일 남원농협 고축 종합 시설에서 지역 내 농업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협중앙회에서 주최하고 남원농협 주관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열린 의사회, 원광대학교 전주 한방병원(이상 의료진료), 원광대학교 치과병원(구강검사), 다비치안경(검안·돋보기 제공)과 함께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서 남원농협은 상비 의약품 제공, 음료 및 간식 제공 창고 부스를 운영하고 특히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기납 활용을 실시하여 즉석에서 인화된 사진을 제공하는 등 차별

화된 복지서비스로 큰 반응을 얻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전북지역 31개소 농협이 농촌 왕진버스를 신청했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와의 협력에 힘입어 농촌 왕진버스가 남원농협에서 첫 출발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생활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는 함차게 달릴 것이며 농업인들의 복지 수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열 조합장은 "의료 공백지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의 고령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의료진이 찾아와 의료검진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줘 고맙고 농업인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선정

전주상공회의소(회장:김정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인턴형)은 최근 채용시장이 경색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역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과 직무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역량과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정규직 전환과 지속적인 경력개발까지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를 위해 청년에게는 8주 기준으로 최대 280만원의 수당이자급되고, 참여기업에는 최대 70만원의 지원금과 멘토수당을지원하여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한다.

지원대상은 참여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이며, 참여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라면 가능하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은 "이번 운영기관 선정을 통해지역내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경험과 안정적인 취업환경을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채용의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지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민관 손잡고 안정적인 누에 생산·관리 나선다

농진청, 누에 안정생산 관리 민관 현장 지원 협의회 열어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 14일 새단법인 대한잡사회 잠사유통연구원(총복 청주)에서 각 도 관계 기관, 민간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누에 안정생산 관리'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상기후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누에사육 중 병해충 발생이 늘고 있다. 이는 원누에(원종) 생산량 저하를 불러와 누에씨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민관 합동 특별 전담팀을 운영, 이를 통해 누에 생산 기술교육, 누에병 예방관리, 누에씨 생산기술 지원



등 안정적인 누에씨 보급에 힘썼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운영했던 민관 합동 특별 전담팀을 확대해 민관 현장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월별 활동 계획을 세웠다.

협의회는 전국 누에씨 보호·생산 기관 또는 업체를 방문해 누에씨 생산, 사육 환경, 수급 상황, 질병 관리

등 누에 생산 전 과정에 걸쳐 현장 점검(모니터링)과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상기후로 누에씨 생산량이 감소할 것에 대비해 지역별 누에씨 생산 상황을 실시간 공유, 누에씨 생산이 부족하면 추가생산이나 지역별로 남는 누에씨를 분배하는 등 누에씨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이 수행하고 있는 △누에병 예방 소독제 효과 검증시험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한 누에 스마트 생산시설 구축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개발 △누에 우수 품종육성 △홍판(5명7일누에)의 건강기능성 연구 진행 상황과 예상 성과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옥기 기자

전기안전공사, 제2기 청년 자율방재단 워크숍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하영)는 지난 13일 제 2기 청년자율방재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지난해 진행된 제1기 청년자율방재단의 활동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취업 토크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오병권 자연재난실장 등이 참석해 고령화되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청년층 유



입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년자율방재단은 지난해 전기안전공사가 최초로 시도한 사업이다. 지역 사회 자율방재단의 고령화에 대응하

는 동시에,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지난해 1기 자율방재단은 실제 전북 완주군 집중호우 수해복구 지원 등에 나서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를 거둔 덕에 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재난관리 우수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청년자율방재단은 올해 정부의 신규 재난정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전기안전공사와 관계 부처간에 청년방재단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농어촌공, 해빙기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는 17~28일 해빙기 취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시설은 전북권내 총 저수용량 5만㎥ 이상 저수지 중 정기안전점검 D등급이하 저수지 25개소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에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해 위험요인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위험시설 사용 제한 등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본부는 21일까지 공사가



진행중인 관내 136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시설물 붕괴, 전도와 같은 사고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건설현장 중대재해 관련 유사사고를 예방 점검할 계획이다.

추가로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주력, 끼임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